

단체장·지방의원들 “나 어떡해”

현역 의원 4명 공천 탈락 지역구 동반탈당 요구에 난감

민중통합당 4·11 총선 공천자가 확정되고, 경선 후보자가 압축되면서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 4명이 공천에서 무더기로 탈락한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시의원·구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행보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 공천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 의원들의 해당 선거구 소속 지방의원들이 경선을 앞두고 정치적 활로 모색을 위해 각각 특정 경선후보 캠프로 소속 합류하는 등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김재국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를 전·현직 지방의원들도 김 의원의 재선경구가 각각력에 따라 이날 경선 후보인 임내현, 최경주, 최경환을 각각 지지하며 소속 캠프로 합류했다.

반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현역 의원을 따라 탈당을 선택하는 지방의원들도 잇따르고 있다.

최인기(나주·화순) 의원과 조영택(광주 서구 갑) 의원 지역구 전·현직 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은 공천심사에 반발하며 8일 지역위원회에 무더기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탈당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동반 탈당을 요구받고 있어 향후 거취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보유하면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경우 2년 후 지방선거 때 ‘해당 행위’로 공천과정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탈당 여부를 놓고 심사 속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역 의원을 따라 탈당할 경우에도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탈당·복당’이라는 오점이 공천과정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밖에 현역 의원이 탈락하지 않은 남구와 북구 갑, 광산 갑 소속 다다수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장병완, 강기정, 김동철 의원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가운데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새 판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작용 탓에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또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지방의원은 “민중통합당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동구 투

신 자살 사건’도 잘못된 공천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를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성평등 정책 실현하겠다”

여성정책 10대 과제 발표

민중통합당은 세계여성의 날인 8일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시켜 성평등 시책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4·11 총선 정책·공약회의를 열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홍섭 정책위원장은 “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올리고,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 지급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방문 돌봄 서비스’ 대상도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로 돌봄보 서비스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산전 후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조약 권고기준인 14주(98일)로 확대하고 정부의 산전 후휴가 급여지원금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자 육아휴직 2개월도 보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수도권 여성후보들 “파이팅” 민주통합당 수도권에 출마하는 여성후보들이 8일 오전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영교(중앙갑), 임지아(서초을), 이은주(광명을), 차영(양천갑), 김영주(영등포갑), 김상희(부천 소사), 김진표 원내대표, 남윤인수 최고위원, 김유정 예비후보(마포을), 이용섭 정책위원장. 연합뉴스

“야권연대 성사돼도 호남 ‘무공천’ 없다”

민주당 관계자 “후보 단일화 지역 경선할 것”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 서구 을과 전남 순천시 등이 야권연대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지만 ‘무공천’을 요구하는 통합진보당과 ‘후보단일화 경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당은 8일 오후 야권연대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7일 진행된 실무 협상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최종 실무 협상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양 당은 큰 틀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협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양당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출마해 관심이 쏠렸던 서울 관악구는 민주당 내 경선승자와 여론 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양보 지역으로 꼽혔던 서울 은평구의 경우, 통합진보당 전호선 대변인이 후보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덕양갑(심상정), 노원병(노회찬), 인천 남구갑(김성진) 선거구가 전략지역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기 성남·중원과 경기의 정부도 통합진보당에 양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된 파주 을은 민주당 양보 지역, 파주 갑은 경선 지역으로 가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갑, 성북을, 경기 광명을, 과천의 왕, 성남수정, 수원 장안, 인천 남동갑에서도 후보 단일화 경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호남권의 경우 통합진보당은 광주 서구을과 순천시 전략지역으로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무공천은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는 홍성·예산을 통합진보당에 양보하고 대전 대덕에서 후보 단일화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양당은 총선 공동정책으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권력형 비리 사건 국정조사 및 특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 사용제한 강화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재벌 중심의 독과점체제 개혁 △중합권성채널 정책 재정립 및 국정조사 △남북 화해협력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밤 늦게라도 야권연대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고 민주당이 양보하는 지역 후보 두 지를 수를 넘지 않을 것이며 후보 단일화 경선 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며 “호남의 경우, 야권연대가 이뤄지더라도 ‘무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욱기자 tuim@kwangju.co.kr



‘나꼼수’ 김용민 공천할까

민주 전략공천 4~5곳 후보선정 막판 고심

민중통합당이 4·11 총선의 전략공천 지역 4~5곳의 후보 선정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은 ‘나는 꼼수다’ 멤버인 김용민씨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적합한 후보를 선정하지 못해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맡긴 인천 남동을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지역으로 결정됐다. 이곳은 이효용 전 의원이 당선됐던 곳으로, 이 전 의원의 부인인 박인혜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출마표를 던졌다.

서울 동대문갑, 중구, 영등포을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 선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 투입될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전 의원, 신경민 대변인, 유종일 KDI 교수, 천정배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 대변인은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지만 지역구 출마시 30년간 거주한 영등포을을 출마가 거론된다. 유 교수는 동대문갑이나 중구 공천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경기 부천 원미갑에 김경철 전 한국노총 부천지부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 시청 앞에 품격이 다른

최고의 수익형 오피스텔이 옵니다!

상무 중흥S-클래스 스카이31

광주의 새로운 하늘을 만나다!

3월 9일 OPEN

오피스텔도 중흥이 만들면 다릅니다!

상무 중흥S-클래스 스카이31

- 조망** 무등산과 광주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특급전망 초고층 랜드마크
- 입지** 각종 행정·금융기관과 대형 병·의원 등이 밀집한 광주시청 앞 핵심 입지로 높은 투자가치 기대
- 교통** 무진로, 빛고을로, 상무로, 제2순환도로, 공항, 종합버스터미널 등으로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
- 생활** E-마트, 롯데마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시청앞 평화공원 5·18기념공원 등 편리한 문화생활환경

사업설명회 및 경품이벤트

- 사업설명회**
 - 일시: 3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메리어트 웨딩을 2층 연회장
 - 참석자 추천행사: 황금열쇠 10개
- 경품 이벤트!**
 - 응모기간: 청약 접수기간 내
 - 응모대상: 청약신청자 (총 8명) 1명 추첨 1명 중첨
 - 추첨일: 청약자 호실 추첨일

30층 808실(A, B, C, D, E, F, G, H, I Type)

문의전화 062-364-0001

KAIT 한국자산신탁 | 중흥건설 | 중흥건설

*상기 시세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광역조감도 및 이미지는 실제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적용됩니다.